

# 전남, 공·수 강화... “내년엔 K리그1에서 뛰겠다”

‘중원의 핵’ 이후권·골키퍼 오찬식 재계약... 선수단 재정비 속도  
중앙 수비수 장순혁 영입...제공권·몸싸움 강해 ‘잔물수비’ 특화  
K3 공격수 박희성 영입...지난해 김해시청 리그·챔피언십 우승 견인

전남드래곤즈가 2021시즌 승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남은 지난 4일 새해 첫 훈련을 하면서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정호와 조운형이 나란히 부천FC로 떠났고, 지난 시즌 그라운드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은 에르난데스(그레미우), 하승운(포항)도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원소속팀으로 복귀한 상황. 전남은 5일 ‘중원의 핵’ 이후권과 2년 재계약을 하며 한숨 돌렸다.  
2019년 여름 부산아이파크에서 이적한 이후권은 전남 중원에서 살핀 끈 역할을 했다.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그는 전경준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받아 2선으로 전진,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후권은 22경기에서 나와 2골을 넣는 등 전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전남의 FA 재계약 콜을 받았다.  
이후권은 “재계약을 앞두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 2017년 많은 사랑을 받은 성년을 떠날 때 주변에서 아쉬워하고 나도 후회가 많았다”며 “전남에서도 많은 팬이 사랑을 보내주셨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도 내가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

살든 좋다고 해줘 고마운 마음이 크다. 감독님과 코치님들도 함께 하자고 연락을 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팀의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팬들과 많이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 올해는 팬들이 저를 원하셨던 만큼 더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남은 박준혁의 부상 공백 속 실력 검증을 끝낸 골키퍼 오찬식과도 3년 재계약을 했다.  
여수 출신인 오찬식은 광운대 재학 중이던 지난해 공개테스트를 통해 전남 유니폼을 입었다. 충주시민축구단과의 FA컵 경기를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른 그는 지난해 10월 주전 골키퍼 박준혁의 부상으로 정규리그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찬식은 3경기에서 3실점만 허용하는 등 좋은 플레이를 선보였고, 발전 가능성을 본 전남은 3년 계약서를 내밀었다.  
오찬식은 “입단할 때 1년 계약을 하고 와서 정말 열심히 했다. 출전이 쉽지 않은 포지션이라 데뷔하게 될 줄 몰랐는데, 4경기나 출전해서 기분이 좋았다”며 “여수가 고향이라 어릴 적부터 전남을 고향팀으로 생각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은 새 얼굴을 통해 공·수에도 힘을 더했다. 5일 전남은 충남아산FC의 중앙 수비수 장순혁



이후권



오찬식



장순혁



박희성

를 영입했다.  
188cm의 장신 센터백인 장순혁은 제공권이 강하고 몸싸움에도 능하다. 수비수이지만 패스와 드리블 등 발기술도 좋은 그는 수비 리딩능력까지 갖춰 ‘잔물 수비’를 강화할 자원으로 기대를 받는다.  
U-23 대표팀 출신인 그는 2016년 울산에 입단한 뒤 강릉시청, 부천FC를 거쳐 2019시즌 아산으로 옮겼다.  
지난 2시즌 동안 43경기 1득점을 기록했고 부

주장으로 선·후배 가고 역할도 했다.  
장순혁은 “전남에 입단해 기쁘다. 팀의 가장 큰 장점이 수비라고 생각했다. 특히 잔물수비가 인상 깊었다. 올해도 잔물수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전남은 앞서 4일에는 김해시청의 공격수 박희성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여수 출신인 박희성은 이리고와 고려대 시절 U-20, U-23 대표팀을 지냈고, 2013년 FC서울에 입단했다. 2019시즌까지 서울과 상무에서 68경

기 7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다부진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인 박희성은 지난해 K3 김해시청으로 이적해 21경기 9득점으로 팀의 리그·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다.  
K3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K리그로 복귀한 박희성은 “전통이 깊은 팀에 입단해 영광이다. 팀이 1부리그로 승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리그 재정건전성·경쟁력 강화 원년”

### ‘3선’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3선에 성공한 권오갑(70)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재정건전성과 리그 경쟁력 강화’를 2021년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진행된 총재선거 후보등록에서 유일하게 등록한 권 총재는 총재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유무 심사를 통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2013년 취임 후 2017년 재선에 이어 3선에 성공한 권 총재는 2024년까지 연임을 이끈다.  
권 총재는 4일 신년사를 통해 ▲구단 재정건전성 강화 ▲유망주 육성 ▲리그 차원의 수익 창출 ▲기본 충실을 약속했다.  
그는 “2020년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 한 해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리그를 시작하고,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를 통해 리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목표로 ‘구단 재정건전성 강화’를 언급했다. 권 총재는 “비율형 셀러리캡 등 경영효율화 방안들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K리그의 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치밀한 연구와 논의를 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해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 “유소년 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해 22세 이하 선수의 무출전제도 등 노력을 해왔다. 2023년부터는 로스터 제도가 시행된다. 선진사례 벤치마킹, 규정 완비를 통해 이 제도가 K리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망주 육성을 통한 K리그 경쟁력 향상을 언급했다.  
‘기본’도 강조했다. 권 총재는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연구지 밀착 마케팅, 사회공헌 활동, 공정성 강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 등 올해도 기본에 충실히 하겠다. 이를 통해 더 재미있고 수준 높은 K리그, 팬들이 즐겨온 K리그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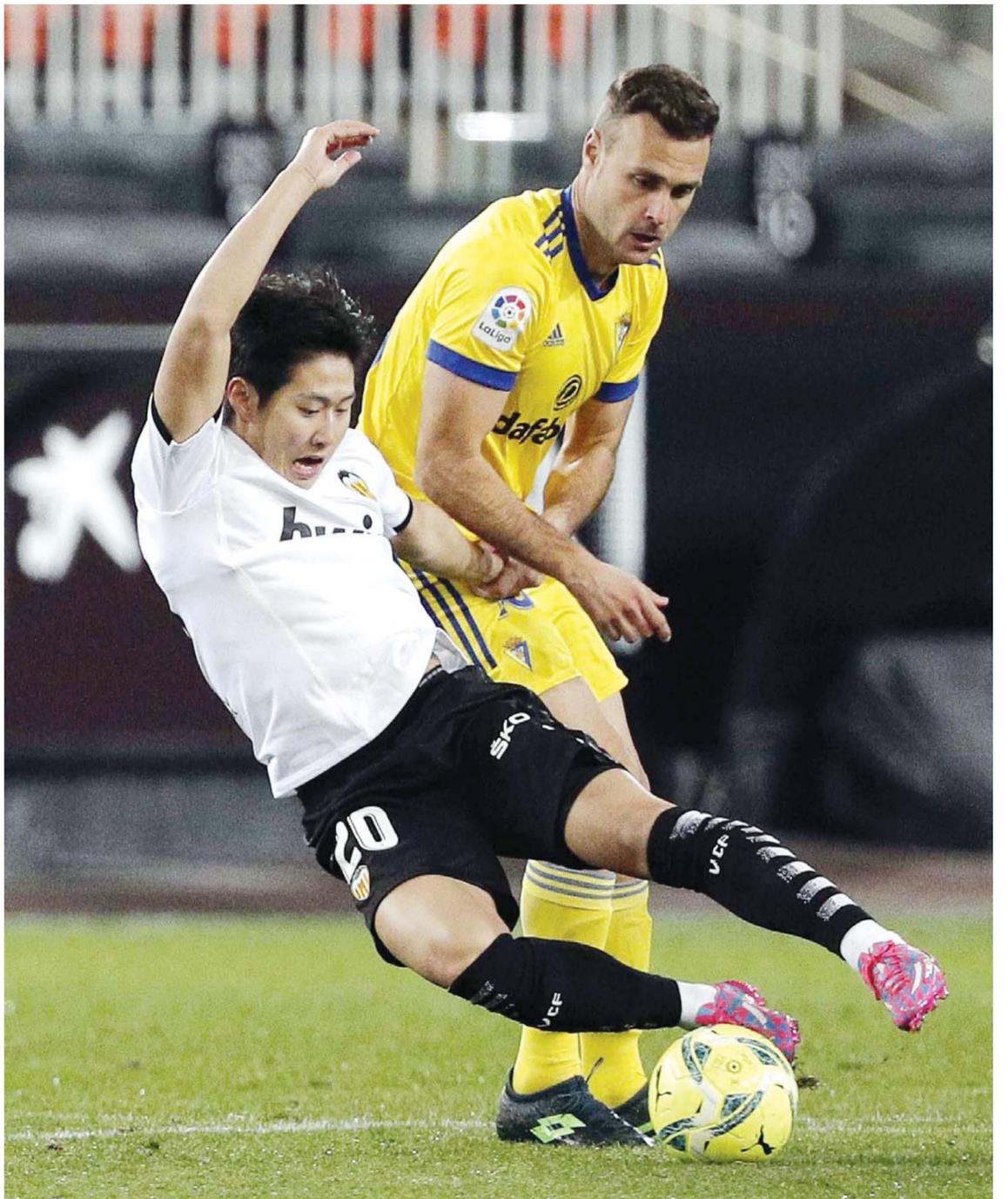
## “경기력 향상 올인...팬 사랑 받을 것”

### 정치택 KBO 신임 총재

새로 KBO를 이끌게 된 정치택(71) 신임 총재가 경기력 향상, 팬 관심 제고, 도쿄 올림픽 우승, 리그 수익 개선 향상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정 총재는 5일 KBO 7층 브리핑룸에서 취임식을 하고 KBO 제23대 총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 총재는 ▲철저한 방역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 ▲경기력 향상 방안 강구 ▲팬 관심 제고 방안-도쿄 올림픽 우승 전략 수립 ▲리그와 구단의 수익 개선을 목표로 언급했다.  
정 총재는 “우리나라 야구는 중주국인 미국도 두려워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 과제가 많다. 위기를 기회로 이끌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리그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리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기력 향상’도 이야기했다.  
그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해 10개 구단이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략 평준화를 통해 KBO 리그



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준 높은 지도자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 야구 데미 기관과의 협력, KBO 코칭 아카데미 정착 방안도 이야기했다.  
정 총재는 또 “팬들의 관심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도쿄 올림픽 우승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팬 성향을 조사·분석해 팬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팬 서비스 구단에 대한 시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디오판독 센터 시스템 고도화, 로봇 심판 시범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판정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교육과 엄정한 제재 등 클린베이스볼 정책을 통해 선수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팬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이강인 “내 인생에 태클 걸지마!” 이강인이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우타르 데 발렌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리리가 경기에서 드리블하던 중 카디즈의 수비수에 손목을 붙잡혀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